

2월 육우고기 소비홍보 활동사항

1. 지면매체 육우홍보

지면매체를 대상으로 육우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다수의 매체에 육우와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게재됨

□ 육우 전문가 칼럼: 1개 매체

○ 동아일보 (1.27/오피니언: 한우에 소외된 육우산업, 정부가 육성을)

한우에 소외된 육우산업, 정부가 육성을

육우는 우유 생산 과정에서 얻어지는 낙농의 부산물인 젖소 수송아지 또는 송아지를 출산한 경력이 없는 젖소 암송아지를 키워서 생산한 고기소가 중심으로, 귀중한 국내산 쇠고기 자원이다. 2007년 한파 마리당 45만 원을 상회하던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2008년 초에 4만 원대까지 하락했으나 최근 20만 원대까지 회복했다. 이 같은 결과만을 보면 육우산업의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쇠고기시장이 개방된 상황에서 육우산업을 방치할 경우 육우 가격은 언제 또다시 흔들릴지 모른다. 한우는 육질 차별화를 통해 수입 쇠고기와 경쟁을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는 데 비해 육우는 수입 쇠고기와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육우 가격이 회복된 것은 경우별 파동 이후 원산지표시제와 이력추적제 실시 등에 따른 유통의 투명화로 국

산 프리미엄이 작용했고 환율의 영향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008년 기준으로 1인당 우유 소비는 연간 61kg으로 쌀(78kg)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에 비해 우리와 유사한 식생활 패턴을 지닌 일본은 1인당 연간 쌀과 우유 소비량이 각각 59kg과 86kg이다. 국내에서도 우유 소비가 쌀 소비를 앞지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따라서 식량안보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낙농 생산기반 유지는 필수적이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는 것이 바로 육우다. 2009년 현재 국내 소 도축 마릿수의 14%를 차지하는 육우산업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이 필요할까?

첫째, 육우 송아지를 생산하는 농가가 최소한 정상 이윤을 확보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육우 송아지가 가

격 보전 수혜 대상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개방화 시대에 정책적 배려 없이는 육우산업 안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육우고기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육우고기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국산악우(國産若牛)'라는 로고를 만들어 안전성과 저지방이라는 두 가지 특성을 내세워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있다. 셋째, 육질 차별화와 생산비 절감 대책이다. 생산자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책 지원을 병행할 때 육우산업이 안정될 수 있다.



조 석 진

영남대
식품산업경영학과 교수

2. 우리 육우 사랑 캠페인

유통업체,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지 섹션지와 함께 '우리 육우 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소비자의 체험기회 확대는 물론, 매체에 캠페인과 관련된 다양한 기사가 게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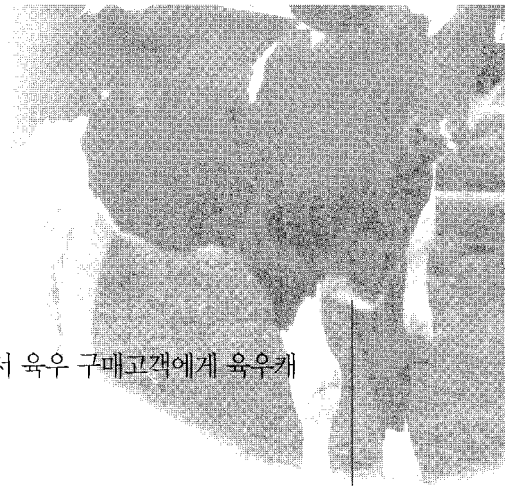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함께하는 '우리 육우 사랑 캠페인'

○ 육우 시식행사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행신점(일산), 모라점(부산) 2곳에서 육우 (구이, 불고기) 시식행사 진행

- 육우존 설치, 육우 판매 병행

- 기간: 2월 3일~6일



○ 소비자 증정 행사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E타입 134곳 + S타입 2곳 매장에서 육우 구매고객에게 육우캐릭터 무릎담요 증정 행사 진행
- 기간: 2월 3일~12일

○ 사진부 행사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승인점에서 캠페인 시작 사진부 행사 진행
- 총 19매체, 21명 참석
- 총 18매체, 38건 게재
 - * 지면: 12개 매체, 12건 게재
문화일보, 경향신문, 서울경제, 서울신문, 세계일보, 포커스, 아주경제, 아시아경제, 국제신문, 시민일보, 일간경기신문, 경남도민일보
 - * 온라인: 6개 매체, 26건 게재
조선일보 (1건), 연합뉴스(12개), 뉴시스 (5건), 머니투데이 (3건), 아시아경제 (3건), 아주경제 (1건)



○ 온라인 바이럴 진행

-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웹사이트 및 육우사랑 카페에 캠페인 이벤트 페이지 게재, 온라인 바이럴 진행
- 육우 사랑 홍보대사 포스팅 작성

○ '우리 육우 사랑 캠페인' 단신: 10개 매체

- 파이낸셜뉴스(1/29), 포커스 (1/29), 부산일보(1/29), 시티신문(2/1), 국제신문(2/2), 아시아경제(2/2), 연합뉴스(2/2), 한국일보(2/2), 스포츠서울(2/3), 스포츠조선(2/9)

□ 온라인 커뮤니티 설문조사

○ 주부 커뮤니티 3곳 (이지데이, 마이클럽, 아줌마닷컴)과 '설날 상차림에 대한 설문조사' 진행

- 기간: 2월 9일~15일

- 총 7,120명 참여

- 커뮤니티 별 100명 선발, 총 300명에게 육포 세트 증정


-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자료 배포

○ '설 구매 쇠고기 90% 이상 국산': 11개 매체

- 뉴시스(2/19), 시티신문(2/19), 연합뉴스(2/19), 프라임경제(2/19), 한경닷컴(2/19), 비즈플레이스(2/19), CNBNEWS(2/19), YTN(2/19), 아시아경제(2/21), 경기신문(2/22), 광주드림신문(2/22)

□ 일간지 색션지 유가 기획

○ 조선일보 행복플러스와 유가 기획 진행

○ 저렴한 가격에 한우급 육질 '착한 고기' (2/16일 게재) 

저렴한 가격에 한우급 육질 '착한 고기'

국내산 육우

1. 국내산 쇠고기(한우)는 맛과 영양이 풍부하며,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2.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3.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저렴한 가격에 한우급 육질 '착한 고기'

1. 국내산 쇠고기는 맛과 영양이 풍부하며, 건강에 좋은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2.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3.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사육 기간이 길고, 사육 환경이 깨끗하여,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육우 판매량 상승 추세

1. 국내산 쇠고기(한우)의 판매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意識이 높아지고, 국내산 쇠고기의 맛과 영양이 인정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2. 국내산 쇠고기의 판매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意識이 높아지고, 국내산 쇠고기의 맛과 영양이 인정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3. 국내산 쇠고기의 판매량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들의 건강意識이 높아지고, 국내산 쇠고기의 맛과 영양이 인정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리에 흠뻑 젖는다.

Paris, F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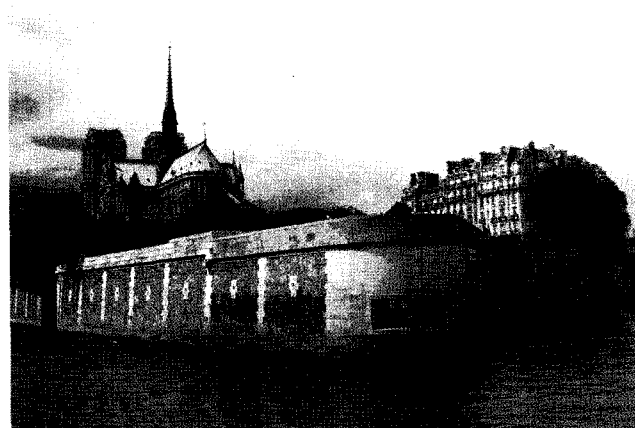
글·사진: 김성만

문화와 예술의 도시 파리. 거리 곳곳이 역사이고, 문화이다. 파리하면 떠오르는 곳들, 그곳들을 찾아 다녔다. 이미 TV에서 영화에서, 책에서, 사진에서 수없이 보아왔던 곳이다. 그럼에도 보면 볼수록 지겨워진다는 느낌은 한 움큼도 없고, 빗방울이 하나하나의 의미를 담아 나를 적시듯 그냥 파리의 문화에, 그리고 분위기에 흠뻑 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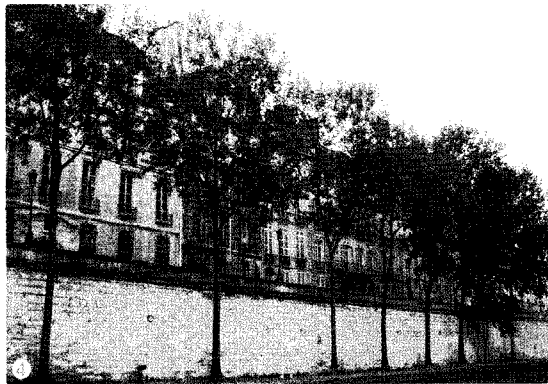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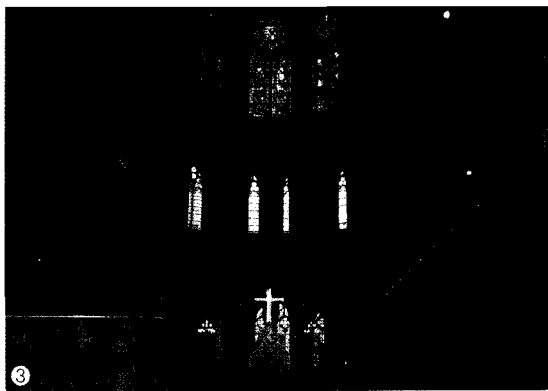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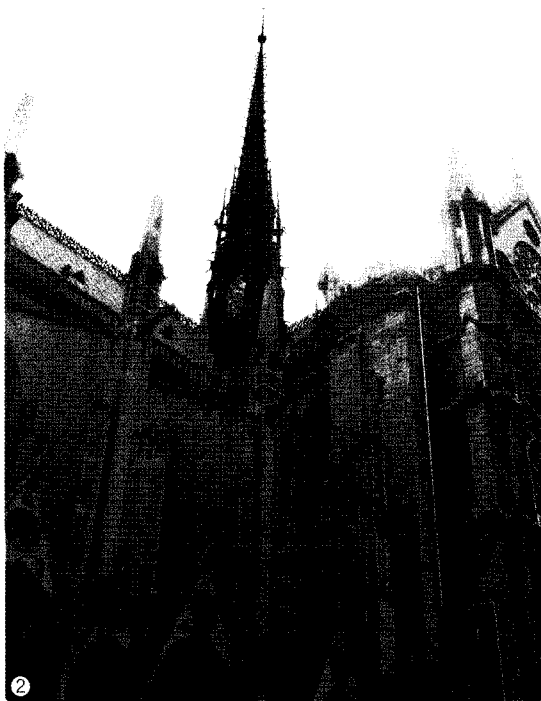
시테섬

파리의 기원이 되는 역사의 중심지

파리 여행을 계획하며, 시테섬 일주에만 하루를 잡았다. 크지 않은 섬인데, 한 걸음 한 걸음이 볼거리라는 충고를 반영한 결과였다. 서울 한강에 여의도가 있는 것처럼, 파리의 세느강에는 시테섬이 있다. 시테섬은 파리의 기원이 되는 곳으로, 고대 로마인이 들어와 정착하여, 로마시대와 중세시대에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의 역할을 한 곳이다. 이 섬에는 노트르담 성당, 콩시에 르주리(법원), 생샤렐, 카르티에 라탱, 재판소 등 그 당시의 중세의 변화했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섬을 다 돌아보기는 하루로도 모자랐다.



1 시테섬



노트르담 성당

파리의 심장이라 불리는 곳

어디서 들어본 이름. 그렇다. 바로, 유명한 '노트르담의 꼽추'의 무대가 된 곳이다. 노트르담 성당은 7세기에 공사가 시작되어 무려 3세기동안 건설된 대성당이다. 지금 보아도 크기와 분위기에 압도될 정도로 성당은 웅장하고, 섬세했다. 성당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예전 중세처럼 공연 등이 밤낮으로 계속된다. 노트르담 성당 앞이나 에펠탑 아래의 광장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어렵지 않게 거리의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 꼭 생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지라도 파리에 산재해 있는 공원과 광장은 시민들 스스로가 문화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것 같다.

노트르담 성당은 웅장한 외관만큼이나 내부도 화려한데, 특히 유명한 북쪽 창인 장미의 창은 중앙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가 새겨져 있어 경건함이 더해진다. 성당 내부에는 수도사 복을 입은 가이드가 각국어로 안내된 리플렛을 나누어 주는데, 한국어 버전도 상당히 있다.

성당 외관을 돌아다니다 보면, 종탑 둘레에 조각된 괴수모양의 낙수받침이 있는데, (영화에서 본 듯한 이미지 그대로) 이 특이한 모양이 파리의 시내의 전경과 어우러져 기묘한 느낌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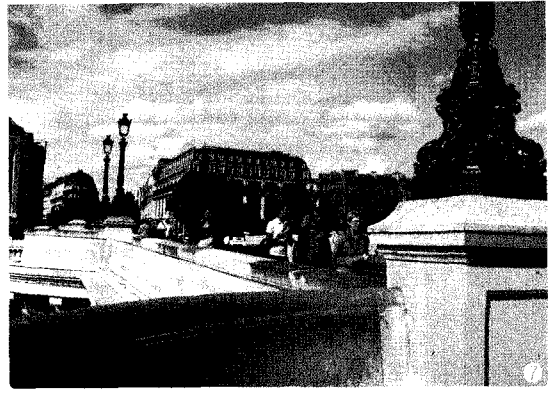
- ② 노트르담 성당
- ③ 노트르담 성당 내부
- ④ 콩시에르주리
- ⑤ 카르티에 라랭 지구



콩시에르주리

역사적 이벤트를 거쳐간 곳

북쪽 강변에 정갈하게 자리잡은 이 반듯한 빌딩은 규모가 꽤 커서, 바로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세느강을 건너 반대편에서 보는 것이 더 잘 보인다. 콩시에르주리는 관물 관리인이라 뜻인데, 최초에는 왕궁의 일부였으나, 프랑스 혁명 이후 감옥으로 사용되었다고 한다. 역사적인 건물인 만큼, 수감된 이의 면면도 화려한데 마리 앙투아네트,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 역사의 획을 그은 이들이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수감되어 있던 곳이다. 현재는 프랑스 최고재판소의 건물로 활용되고 있다. 그래서, 입장을 할 때 꽤 삼엄한 몸 수색을 받는다.



- 6 메트로
- 7 일퐁네프 다리
- 8 베르사이유 궁전

파리의 대학가

역사가 묻어있는 젊음의 거리

시테섬에는 파리의 지식과 문화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온 카르티에 라탱 지구가 있다. 예전부터 카르티에 라탱은 왕의 권한 밑에서 자치를 누리던 대학지구였는데, 이는 이 지구의 모든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도 모두 라틴어를 사용했다는 일종의 질서와 부러움이 섞인 이름이라고 한다. 프랑스 영화하면 딱 떠오르는 소피마르소의 유콜잇러브와 라붐이 촬영된 곳이기도 하며, 반전 운동이 일던 레지스탕스 운동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소르본느로 대표되는 대학가가 현재에도 있어, 수많은 대학생들이 오가는 거리는 매우 활기차며, 각종 서점, 문구점, 카페, 옷가게, PC방 등 어느 대학가에서 볼 수 있는 젊음의 활기가 느껴진다.

퐁네프

세느강을 건너는 가장 오래된 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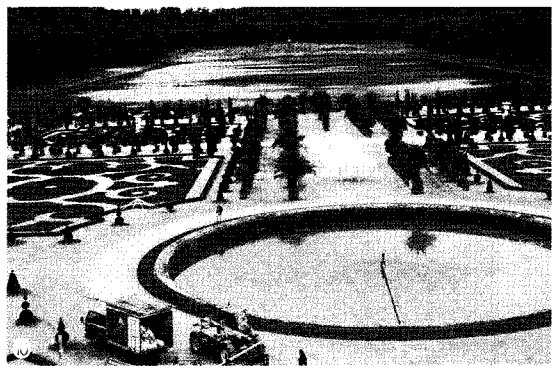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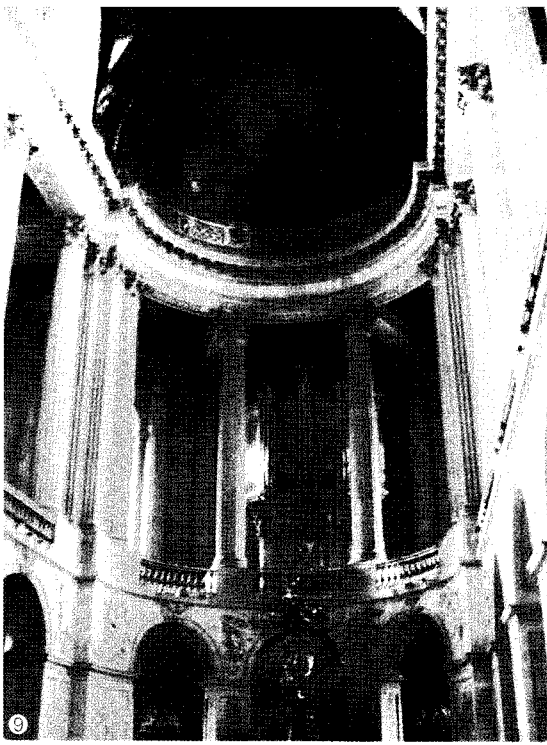
파리의 지명은 어디서 한번 듯 들어본 듯한데, 이 다리의 이름은, 그렇다! 바로 '퐁네프의 연인들'이란 영화의 배경이 되는 바로 그 다리다. 한때, 예술영화의 붐이

메트로에서 파리의 예술을 만끽하기

파리는 지하철로 오가는 것이 편하다. 14개의 노선이 촘촘하게 도시를 수놓고 있다. 파리 지하철의 특별한 점은 지하철에서 작은 연주회가 열린다는 것이다. 원래는 지하철 당국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해야 하는데, 적지 않은 수의 연주자들이 단속의 눈을 피해서 지하철에서 연주를 하고, 생계를 이어간다고 한다. 복잡한 지하철에서 맛보는 멋진 연주를 듣고 싶다면 시간가는 줄 모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하철 노선이 복잡하기 때문에, 원하는 목적지를 가려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한다. 지하철 뿐만 아니라 지하철역 내부에서도 다양한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

일었던 시절 대표작 같은 영화였는데, 정말 거대하고 클 것 같았던 다리는 실제로 가보니 동네 다리처럼 작고 왜소한 느낌이었다.

프랑스 속담 중에 '퐁네프처럼'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한다. 이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는 뜻이라고 한다. 그 말처럼, 퐁네프는 파리에서 현존하는 세느강의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이다. 그러나 정작 퐁네프는 '새로운 다리'라는 뜻인데, 이는 지어질 때 새로운 다리라는 이름으로 붙여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베르사이유 궁전

쇼핑가에 둘러싸인 프랑스 대통령 관저

줄이 길다는 소문을 듣고 아침부터 서둘러 갔다. 40~50분을 차를 타고 갔을까? 잘 정돈된 가로수 길이 나타난다. 이 길을 따라 조금 걸으니 넓게 펼쳐진 궁전의 입구가 나온다. 개장 시간에 맞추어 갔는데도 벌써 엄청난 줄이 서 있다. 한 시간을 넘게 기다려 들어간 베르사이유 궁전은 규모에 한번 놀라게 되고, 그 하나하나 세세한 것의 화려함에 놀라게 된다. 몇 군데만 돌아보아도 당시의 절대왕권의 막강함을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다. 절대 권력의 위대함과 동시에, 결국은 국민의 분노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권력의 허망함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곳이다. 곳곳이 화려한 궁전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중에서도 하이лай트인 거울의 방을 만나게 된다.

이 방은 정말 지구상의 최고의 화려함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수많은 거울에 유리창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그대로 반사되어 방 전체가 눈부시게 화려하다. 그럼에도 베르사이유 궁전의 진짜 하이лай트는 왕궁보다도 정원에 있다. 정원에는 태양의 왕이라 불렸던 루이14세가 심었다는 15만여그루의 나무가 아직까지도 잘 정돈되어 있다. 이 정원의 방대함이야말로 절대권력의 막강함을 느끼게 한다. 이 정원의 규모가 너무 커서 걸어서 구경하는 것은 정말 무리이다.

정원을 배경으로 절대권력, 프랑스 왕족의 여유로움

- 9 베르사이유 궁전 내부
- 10 베르사이유 궁전 정원
- 11 베르사이유 궁전의 조각상

을 느껴보고 싶다면 자전거나 미니 열차를 타볼 것 (자전거도 힘드니, 미니 열차를 적극 권한다)을 권한다. ☺

(다음호에 계속)

다음 호에는 파리 역사와 현재!

역사의 상징인 루브르와 오르세 박물관, 현재의 상징인 라데팡스와 몽피두 센터 등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
 홈페이지 www.cyworld.com/man0831
 메일 man0831@naver.com